

# ‘빨치산의 딸’ 굴레 벗고 삶의 빛과 어둠 그려

정지아 작가 창작집 ‘자본주의의 적’ 펴내  
‘빨치산’ 부모님 생애 작품의 자양분  
“소설은 손톱 밑 흙 같은 노동의 흔적”



정지아 작가

“빨치산의 딸로 살아서 좋았습니다. 가난했고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있었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빨치산의 사후에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부모가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충분히 받았구요.”



정지아 작가는 지난 1990년 빨치산 부모님 이야기를 모티브로 쓴 ‘빨치산의 딸’로 당시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출간 즉시 국가보안법에 의해 판금조치를 당했으며 출판사 발행인이 구속되는 극철을 겪기도 했다.

그것은 시대가 낳은 비극이자 우리사회의 아픔이었다. 실제 정 작가의 부모님은 빨치산 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기도 했다.

정 작가가 네 번째 소설집 ‘자본주의의 적’ (창비)을 들고 돌아왔다. 그동안 부모세대의 이념갈등과 역사적 상흔을 그려왔던 작가는 이번에는 새로운 소설 화법으로 삶의 빛과 어둠을 읽어낸다.

지난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를 계기로 작가를 처음 봤다. 남모양이었던 부모님의 삶을 그린 ‘빨치산의 딸’이라는 소설 때문에 다소 강해보일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작품을 작가와 동일시하려는 이편의 단견에 지나지 않았다. 작가는 담담하고 겸손했으며, 창작에 대한 은근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마치 화선지에 물감이 번지듯 창작의 길을 가는 이의 근기가 배어나왔다.

이번 소설집 발간을 묻는 계기에 대해 작가는 “원래는 장편을 먼저 내려 했는데 쓰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아버지에 대한

장편인데 아직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울았던 것이 울지 않고 아팠던 것이 아프지 않고... 50이 넘으며 이러저러한 삶의 굴곡점을 지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가 이번 소설집 주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알았다고 한 것들에 대한 반성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들에서는 기존의 서사적 요소에서 살짝 눈을 돌려 새로운 요소를 탐색한 면들이 보인다. 이전의 창작 문법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변화에 감응하며 소설 세계를 모색한 것 같다.

정홍수 평론가의 표현대로 “경험”이나 “기억” “관계” 등 고유한 실존적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온 오래된 정체성의 이야기 자리에 ‘취향’이라는 새롭게 강력한 존재 증명의 요소들이 펼쳐진다.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면서도 ‘소설의 본령’인 재미와 은근한 울림까지도 전해준다.

“자전적 요소를 사실과 허구의 이중의 겹에 넣고 변주하는” 소설 기법은 그동안 작가의 작품과는 다소 결이 다르지만, 그

러한 스타일의 변주는 작품 세계를 깊고 넓게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로 제 삶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워지고 넓어지는 것, 남아 있는 제 삶의 속제가 있지요.”

작가는 지난 2011년 고향인 구례로 귀향을 했다. 200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구례는 이데올로기의 격전지이면서도 작가의 땃자리였다. 역설적인 이 공간은 어쩌면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감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인지 모른다.

작가는 어머니를 모시며 틈틈이 글을 쓰고 소설 강의와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먹고 자는 일의 송고함을 배우고 있다”는 말에서 이런저런 삶의 풍파를 겪고 난 뒤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달은 이의 선문답으로 들렸다.

“눈을 뜨면 깨달 밥 주고 물 주고 산책하고 엄마 밥을 챙깁니다. 이 사소한 일들이 누군가를 살게 하고 살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웃음)”

모든 작가는 자신이 살아온 만큼 소설을 쓴다는 말이 있는데 정 작가를 두고 하는 말일 것 같다. 비록 살아온 날들이, 아니 자신을 있게 한 부모님 생애가 현대사의 비극과 겹쳐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의미있는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상처는 작가의 먹이다. 작가는 상처를 먹고 자란다”는 말에서 어렴풋이 예상을 할 뿐이다.

그는 앞으로도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 지금보다 더 좋은 소설, 내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을 쓰고 싶다고 한다.

“세계 소설은 왼쪽 손톱 밑에 흙 같은 것입니다. 노동의 흔적이지만 지워야 하는 것이지요. 좀처럼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지워지면 개운하지만 내일 또 흙을 만져야 하고 또 흙이 끼겠지요. 그러한 살아온 흔적, 살아가는 흔적일 테니까요.”

한편 정 작가는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고요나무’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김유정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소설상 등을 수상했으며 창작집으로 ‘행복’, ‘봄빛’, ‘술의 대화’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미안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

전남도립국악단, 29일 무안 남도소리올림픽

41년 전 5월 광주의 아픔을 되새기고, 지금 이 순간 민주화 투쟁 한복판에 서있는 미안마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기획공연 ‘미안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를 오는 29일 오후 5시 전남 무안 남도소리올림픽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화문 촛불집회 사회자로 잘 알려진 박진 단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민주주의’, 2부 ‘우리는 승리하리라’, 3부 ‘함께 만드는 평화의 봄’ 순으로 진행되며, 지난 해 초연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작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 테마곡을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국내 거주하는 미안마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미안마의 봄’이 직접 무대에 올라 미안마 민중가요를 번안한 ‘어찌 잊으리’와 ‘그날이 오면’ 등을 들려주며, 오월 어머니회를 특별 초청해 ‘미안마 청년들이 80년 5월 광주에 묻다’를 주제로 재한 미안마 학생들과 뜻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전 좌석 전화 및 방문 사전 예매만 가능하다. 관람료 일반 1만 원. 문의 061-285-69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미안마 민주화 운동 영화 상영

5·18 3분영화제, 6월2일까지 ‘미안마특별섹션’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5·18 3분영화제’는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작품을 상영하는 ‘미안마특별섹션’을 제2회 영화제 기간인 27일-6월2일까지 운영한다.

상영작은 ‘미안마의 봄을 기원합니다’ 등 4편이며 미안마 민중을 위한 헌정곡 ‘미안마의 봄 MY’와 ‘다 잘될거야’도 만날 수 있다.

‘미안마의 봄 21’은 미안마 영화인 11명과 49명의 일러스트레이터 등 60여명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영화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미안마인들이 미안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담은 영화다.

‘미안마의 봄 MY’와 ‘다 잘될거야’는 한국에서 살고있는 15세 미안마인 소녀 완이화가 미안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부세력의 만행, 폭력, 희생, 아픔, 슬픔을 노래와 영상으로 담은 작품이다.

한편, 제2회 5·18 3분영화제 개막식 및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며, 이날 ‘미안마의 봄을 기원합니다’를 상영한다. 아울러 영화제에서는 박한얼 ‘우리가 이뤄낸 우리의 꿈’, 오정화 ‘오월의 회상’, 이예인 ‘65세 미안 관람금지’ 등 민주·인권·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39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고향·자연·부모님... 일상을 노래하다

김정원 시인 시집 ‘아득한 집’ 펴내

담양 출신 김정원 시인이 시집 ‘아득한 집’ (푸른 사상)을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는 고향과 자연 풍경, 부모님 등 일상의 소재들을 노래한 작품들이 담겨 있다. ‘비’, ‘겨울호수’, ‘떡갈나무리’, ‘명옥헌’, ‘잃어버린 숲’, ‘어머니’ 등 고향을 배경으로 써 내려간 시들이 대부분이다.

“살갑게 웃는 민들레, 토끼풀, 제비꽃, 할미꽃, 냉이꽃은 온 누리에 향기를 내뿜어 겨울잠에서 벌과 나비를 깨운다. 꿩들이 대놓고 사랑을 부르는 산기슭. 까치 부부는 떡갈나무 우듬지에 신방을 차리고 부지런히 새끼를 기른다.”

시인의 말은 영산강이 대숲을 에둘러 흐르고 맑고 푸른 자연이 펼쳐진 담양의 산수를 떠올리게 한다.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삶은 한편의 수목화처럼 잔잔하다.

“객지에서 서럽고 쓸쓸하고 고단하여/ 달이라도 쳐다보고 싶을 때 달려가/ 건너고 싶은 강이 있고/ 오르고 싶은 산이 있



고/ 견고 싶은 들길에 있고/ 등목하고 싶은 우물이 있는 집”

표제시 ‘아득한 집’은 시인의 내면에 숨 쉬는 고향의 집을 이미지화한 작품이다. 그림처럼 풀어낸 옛집은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각박한 세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고향에 대한 의식은 자연의 순환과 함께 이상향으로 수렴된다.

김준태 시인은 “디지털 세계가 아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리고 사람들의 심성이 물레방아처럼 순서대로 차례대로 돌고 도는 곳이 저 아날로그의 고향”이라고 평한다.

한편 김정원 시인은 2006년 ‘애지’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핀다’ 등 7권의 시집과 동시집 ‘꽃길’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림문학재단 ‘어린이문학잔치 시화전’

남광주지하철역서 26일~29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 향연이 펼쳐진다.

한림문학작가협회와 (사)한림문학재단은 26일부터 29일까지 남광주지하철역에서 ‘제6회 어린이문학잔치 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어린이문학잔치는 살레시오 초등학교 1학년 양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출품한 시화작품 200여 점의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40여 편의 작품이 전시된다. 행사가 종료되면 참여 학생들 작품은 소속 학교로 보내져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한림문학재단 박형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게임과 스마트폰 등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많다”며 “이번 시화전이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정서가 순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